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8월 20일 (제912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주님을 대접해 봤는가?

지난주일 광주교회를 찾아 교회 일꾼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나는 “여러분은 평생을 살면서 주님을 천 번 대접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내 질문에 목사를 비롯한 장로, 성도들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마침 군대에서 잠시 휴가를 나온 한 청년이 큰 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니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시원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그 청년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시다.”라며 그를 격려했다. 그렇다.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을 건네도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25:40)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도, 주린 자를 먹이는 것도, 병든 자나 옥에 있는 자를 찾아보는 것도 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기도원에서 식사 준비를 기쁨으로 했다하자. 그것을 먹는 성도가 2,000명이라면 주님을 2,000번 대접한 것이 된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도 이 역시 예수님께 하는 것이니 마음만 있다면 주님을 천 번 대접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관심이 있으면 들리고 보이는 법, 이 이야기를 광주교회 한 성도가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 전한 모양이다. 그 아들이 기도원으로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을 3,000개나 보내왔다. 그는 단번에 주님을 3,000번 대접한 셈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들은 한 집사가 격동하여 새벽시장에 가서 아오리사와 2,500개를 경매 받아 기도원에 가지고 왔다. 그런데 더욱 놀랍게도 이 집사 이야기를 들은 한 장로가 바나나 25박스와 계란 3,000개를 사가지고 온 것 아닌가. 믿음이란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일진대, 우리 성도들의 믿음에 나는 놀랐고 감사했으며, 목사로서, 스승으로서 그 뿌듯함을 억누를 수 없었다. ‘주님을 대접한 자는 의인으로 영생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대접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자. 당신은 주님을 대접하고 있는가?

좋은 것을 벤치마킹하라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를 찾아야 하고, 자동차가 고장 났으면 정비소에 가야 한다. 7월 말부터 3주 동안 진행된 하계산상 집회는 성령충만함을 입는 영적 충전소였고, 고장 난 영·혼·육을 정비하는 영적 정비소였다. 하루 세 번의 예배, 세 시간 넘는 기도가 지치고 고갈된 영혼을 소생시켰다. 마지막 주간 첫날, 목사님은 ‘좋은 것을 벤치마킹하라’는 말씀을 주셨다. “요즘 벤치마킹(benchmarking)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벤치마킹이 뭐니까? 기업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타사에서 배워오는 혁신 기법이 벤치마킹입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모방하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벤치마

키는 구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고 맙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물을 쳐서 가르고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후로 엘리사는 여리고의 물을 고치고, 과부의 집에 기름을 채워주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등 엘리야를 능가하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엘리사에게서 모방해야 할 것은 외적인 능력뿐이 아닙니다. 그의 끈기와 기필코 정신을 모방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그냥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다른 생도들에게 없는 끈기와 이루고야 말겠다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길갈에서, 벧엘에

필요합니다. 절박하고, 피를 토하는 애절한 심정이 있어야 하고, 기필코 이루고야 말겠다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나 환도빠가 부러져도 반드시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아픔의 심정이 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인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바로 중도에 마음이 식고, 변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은 특별한 자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이름으로 온 성령으로 인해 만민제사장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은, 우리가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음은 엘리사 같은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인 바가 있습니까? 기도제목이 있습



한 여름의 영적 대축제, 2017 하계산상집회(7월 31일~8월 17일, 예수중심기도원)

킹을 통해 기술을 향상시켜 기업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방해야 할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사를 벤치마킹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를 따르는 생도는 약 50명이었습니다. 모두 엘리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별난 제자가 있었으니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의 소원은 스승인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참으로 어려운 것을 엘리

사,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엘리사에게 ‘제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 무려 120리 길을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 다니면서도 첫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끈기 있게 나갔습니다. 다른 생도들은 엘리야의 말에 따르기를 중단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의 뒤를 따라 그의 후계자로 그의 갑절의 능력을 취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한 자가 되리라’(히3:14). 무슨 일을 이루려면 엘리사 같은 정신이

니까?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엘리사처럼 어떤 역경이나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첫 마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주시 것입니다.” 3주 동안 목사님은 혼신을 다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의 양식을 먹이셨다. 제발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영과 혼과 육이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산상집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과 특별히 기도원 직원들에게 예수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자 신묘수



성경이 이루어지는 산상집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운영되는 기도원 식당



하루 세 번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산상집회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16:17~20)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신약에는 귀신에 대해 102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귀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은 어떤 존재이고, 그 능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귀신은 천사장이 타락하여 된 마귀의 종개로 믿지 않고 죽은 영입니다. 혹자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는 “예수께서 무리의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두려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병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귀신이 귀가 먹고 병어리가 된다는 것, 그리고 눈이 멀고 꼬부라졌다는 것은 육체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천사, 사람 중에 육체를 입은 것은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신자(信者)와 불신자(不信者)로 나뉘집니다. 신자는 죽음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낙원을 거쳐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불신자는 음부에서 무저갱을 거쳐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음부라는 곳은 바로 마귀가 있는 곳인데, 마귀는 바로 이 땅에 있음을 마태복음 4장이 증명합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광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뜻합니다. 곧 이 땅이 음부요, 마귀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고로 이를 종합해보면 예수를 안 믿고 죽은 불신자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 이 땅을 떠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귀신이 믿지 않는 자의 사후의 영인 것은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제사를 지낼 때 돌아가신 조상의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고전10:20)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믿지 않고 죽은 영이 귀신임을 입증해주는 말씀입니다.

도적을 소탕하면 평안이 오고 간첩을 잡아내면 평화가 온다

이 세상은 음부라 육체를 입지 않으면 뜨거워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음부에 간 부자가 낙원에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어떻게든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2절에 인간의 육체에서 나온 귀신이 돼지 떼 속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혈기 나게 하고, 음란하게 하는 등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일, 안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 그것들의 정체가 다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대부분을 귀신을 쫓는 일에 매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으셨고, 누가복음 4장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마태복음 8장에 문둥병자를 고치셨으며,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마태복음 9장에 혈루

증결린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의문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면 풀립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을 받으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성령을 받으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 열 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웠고(행3),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일으켰으며,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린 것입니다. 이 능력은 70인의 제자에게도 임했습니다.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성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이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막16:17),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

리 모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은 것처럼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랄 일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을 뿐더러, 그보다 큰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제가 까무러쳤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이단이네, 잘못됐네 하니까 주눅 들고, 떠나고, 귀신을 쫓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면 성경을 찢어버려야지요. 또 “다 귀신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요, 다 귀신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데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무조건 쫓아야

합니다. 꿈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조상이 나타나걸랑 가차 없이 쫓아버리세요. 가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들게 하는 귀신도 쫓아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곧 예수께서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 믿는 자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보고 그 예수 이름 앞에 마귀와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 소경이 소경이 아니라 영적 소경이 진짜 소경이다

총알이 장전된 총의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 산패지도 잡고 곰도 잡을 수 있지만, 총알이 장전 되지 않은 총으론 안 되지요. 예수의 제자들이 귀신들린 자를 어찌 하지 못하고 예수께 데리고 와서 왜 우리는 못 쫓아내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9:29)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총알이 장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루의 역사를 마치시고 꼭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눅8:39).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마귀에게 먹고 난 후, 마귀는 합법적으로 귀신을 우리에게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우리의 육체를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합니다(마12:44).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준 권세 있는 새 교훈이요, 특권입니다(막1:27).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마12:28).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기도는 응답받고 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의 거대한 빚에 걸려서 신음 중입니다. 일제 위안부와 강제 징용 근로자에 대한 보상 문제 때문에 소녀상을 세우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일을 당한 나라들 중에 국민적인 분노를 가지고 대처하는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슬픔과 상처는 근본적으로 가해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보상금이 책정 되더라도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의 골이 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상대를 용서하고 과거의 아픈 기억을 깊이 묻는 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꽃다운 청춘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3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수도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 거리에는 추모 천막들이 줄을 이어 서있고, 정치인들의 가슴에 노란 리본이 붙어 있어야 의식 있는 개념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실정입니다.

역사는 항상 되풀이되기에 지나간 사건들을 통하여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욱 더 강해지기 위하여 역사를 활용하지만, 우매하고 간교한 자는 분노를 표출시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역사를 악용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금 어느 쪽일까요?

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나라 일본을 많은 국민들이 증오하고 미워하지만 배울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1995년 1월 17

일 고베 대지진으로 인해 4,484명이 죽고 1만 4,67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건물과 도로, 항만의 파괴로 인해 전쟁터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서울 정도로 냉정하고 침착했습니다. 대대적인 재난방송도 이틀만 하였는데 그 어디서도 피해자의 가족들이 눈물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하며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 기관들과 봉사단체의 지원에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잘못을 따지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자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900년이 넘는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종전증화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국난을 극복하며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열된 나라는 항상 망국의 길로 갑니다. 외부의 적보다도 무서운 것이 바로 내부의 적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지고 바로 서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마음 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분열을 종식시키고 하나가 될 때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 할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2017년 어린이 여름성경캠프 때의 일이다.

물놀이와 삼겹살구이 등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날, 아침부터 많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하늘을 보니 금방 그칠 비가 아니고, 일기에 보도 종일 비가 온다고 한다.

잠시 비가 멈추길 기다리던 유치부, 유초등부 어린이들은 전도사, 교사들의 인솔아래 대성전 로비에 모여 장장한 시간을 비가 멈추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 놀랍게도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칠 것 같지 않던 빗줄기를 그쳐주셨다. 아이들은 이 일로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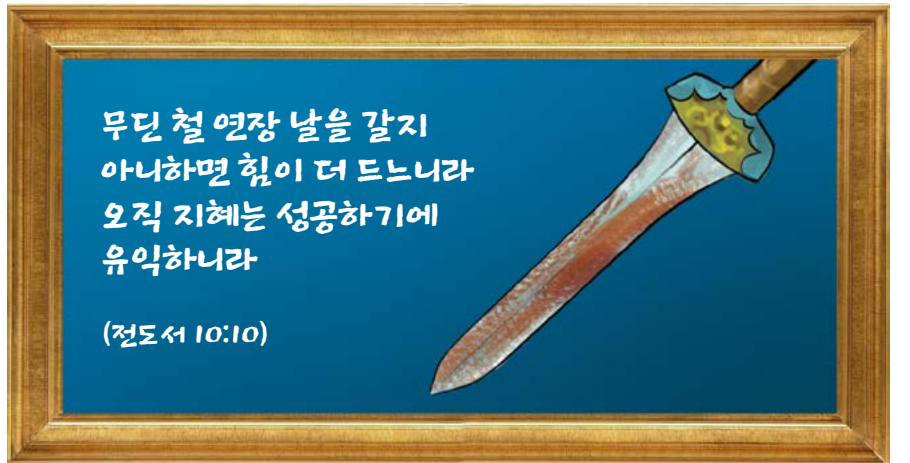
우리 교회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환경에 굴하지 않고 무릎 꿇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기도

를 총회장 목사님께 배웠다. 그래서 단 한 번도 환경에 밀려 뒤로 물러난 적이 없다. 또한 국가와 민족, 가정, 직장, 사업 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도함으로 해결해나가는 능력의 교회요, 교인들이다. 금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그가 비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렸다고 한다’(약 5:17~18). 즉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며, 믿는 자의 특권이다. 그리고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다. 목사님은 말씀하신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무시로 기도하자.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귀를 기울이세요 ::

핑을 잡아야 매지!

내 보석 같은 일기

여보게!

내 속내 좀 털어볼까 하네. 좀 답답하거든. 가끔 장로들이나 성도들이 내게 이런 말을 한다네. 우리 교회도 새신자 교육이나 성경공부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일세. 그런데 나는 생각이 다르네. 나는 목회 32년 동안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도 보았고, 히브리어에 능통한 목사도 보았네. 문제는 그래서 그들이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았네.

신학은 그릇에 불과하다네. 독배기보다 장맛이 좋아야 하는 거지. 신학이 중요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식을 함양하는데 주력하셨겠지. 그런데 그분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은 후에 나가라고 하셨지. 성령이 오면 권능이 오거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충분히 목회할 수 있는 거라네.

베드로와 요한은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이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분시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그런데 배움이 전혀 없는 그들이 거리낌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는 다들 이상하게 여겼지. 그건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이야. 지식을 자랑

하다 혼쫓이 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2:4~5). 그래서 그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나가 유럽을 복음화했네. 아볼로는 성경지식이 출중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이 된지도 몰랐다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성령세례를 베풀지 않던가.

여보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네(고전4:20).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네.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게 해야 하네. 핑을 잡아야 매지. 귀신 한 마리 쫓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말일세. 또한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네. 더욱 성령으로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전사가 되라는 것이네.

朋友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담임선생님은 반 학생들에게 매일 일기를 쓰게 하셨다. 그리고 1주일에 한번 검사하셨다. 공부하기도 바쁜 입시생들에게 일기라니, 선생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선생님께 혼나기 싫어 그 당시 일기를 썼다.

억지로 시작했지만, 일기를 쓰면 쓸수록 좋은 점이 상당히 많았다. 우선 첫 번째로 나도 모르게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버릇이 생겼다.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로 다가왔고, 일기에 적다보니 평범한 일상은 보람찬 일상이 되어갔다. 둘째로 일기를 쓰면서 자기반성을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일기로 나 자신과 대화하며 내가 실수한 것, 내가 부족했던 것을 고찰하고 다음에 더 잘하자는 반성의 시간이 나를 성장하게 했다. 세 번째로 나에게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한 것들을 기록할 수 있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작은 것이지만 속 깊은 선물을 해준 친구들, 힘들 때 위로가 되어준 선배, 부모님 등 모든 것이 적혀있었다. 지금 봐도 1998년의 매일이 당장 어제의 일처럼 기록된 총 5권의 일기장은 나에게 보석 같은 존재

가 되었고, 그 이후로도 일기를 꾸준히 기록하였다.

그런데 최근 설교노트와 여러 가지 필기노트를 정리하다가 올해 2017년의 일기장이 대충 쓰여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일기는 특별한 날만 쓰고 있었다. 일기란 매일 쓰는 것인데 일기가 아닌 주기, 월기가 되어버리고 일기의 내용은 빈약해져 있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항상 일기를 자서전이라 생각하고 쓰라 하셨는데, 내 자서전이 이렇게 내용이 빈약하다고 생각하니 반성이 절로 나왔다.

그래서 당장 지난주부터 일기 쓰는 습관을 고쳤다. 사건사고가 없어도 하루를 반성하며 일기를 쓰고, 글만 기록하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사진을 출력하여 일기장에 붙이고, 은혜 되는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다. 그랬더니 은혜가 넘치고, 흑백의 글로 가득했던 일기장은 사진 한 장의 컬러 이미지로 기억되니 내용 또한 풍성해졌다.

현재의 소중함, 삶의 소중함,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일기를 써봅시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내 인생에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년 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여타 또래들과는 다른 진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졸취업 열풍은 소년등과를 꿈꾸던 조급한 성격을 가진 저에게 꽤나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저 또한 나름대로 성적관리를 하고 있던 터인지라 금세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갓 19세를 넘긴 학생에게 중책을 맡길 어리석은 회사는 없었고, 저는 3번의 이직을 끝으로 현실의 벽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후 20세가 되던 겨울, 대학에 진학하라는 부모님의 권고에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가까스로 수시 2차 전형으로 청주의 한 대학 법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좌절감에 빠져있던 저에게 지방대학이라는 타이틀은 저의 알량한 자존심에 더욱 상처를 가했습니다.

자격지심에 가득 찬 1학년 시절을 보낸 저는 21세가 되자 곧바로 군대에 다녀왔고, 다시 지방에서의 생활은 저로 하여금 우울증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일 금식을 시작했고, 그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청주 예수중심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담임 목사인 일오삼 목사님과 사모님은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고, 마침 작정기도 기간이었던 지라 목사님과 함께 금식기간 동안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때가 제 평생에 가장 간

절히 기도했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식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매일 30분씩 기도하고 잠언 한 장을 읽을 수 있는 작은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다 침대에서 고꾸라져 그대로 잠들기도 했고, 학업에 치여 다음날 1시간 기도하기도 했으며, 서울 본집에 가는 날에는 기도를 못하기 일쑤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귀 기울여주셨습니다. 기도는 제 삶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도서관으로 향했고, 강의실 가장 앞좌석은 저의 고정석이 되었습니다. 얼굴 한 번 보자는 친구들의 연락도 거절하면서 적당히 좀 하라는 말도 많이 들었지만, 총회장 목사님의 ‘가장 이기적인 것이 가장 이타적인 것이다’라는 설교가 마음에 배태된 이상, 저는 철저히, 아니 처절하게 이기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라는 시험이 들 때면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 “예찬아, 많이 힘들지?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전화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며 위로해주시고 기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과 부모님의 기도와 저의 작은 노력에 하나님께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과 성적장학금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장학금 십일조를 드릴 때, 목사님은 “성도가 잘 되는데 목사의 기쁨이란다. 너무 고맙다. 예찬아. 하나님께서 다음 학기에는 꼭 전과목 만점을 주실 거야.”라며 축복해주셨고, 매주 축복기도를 받은 저는 정말 이번 학기에 4.5 만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성적이 발표되고 며칠 뒤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예찬아, 이번 주일에 20분 정도 간증을 하지 않을까?” 저는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간증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제가 전화 받은 다음날인 월요일부터 3박 4일간 유엔의 활동을 모방해 대학별로 국가를 정해서 특정위원회에서 주제에 따라 각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회인 ‘전국대학생 모의 유엔회의’가 예정되어 있던 터라 아무런 성과 없이 간증하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낮기에 하겠다고 했지만 수상을 못하면 저보다는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 목사님이 얼마나 상심하실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두 달이 넘게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고, 기말고사와 기간이 겹쳐 한 달 정도는 하루에 3~4시간 밖에 못 자며, 때로는 며칠 밤을 새는 등 치열하게 준비했기에 어느 때보다 긴장되었습니다.

본대회가 시작되고 매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회의는 다행히 제출기한을 약 10분 남기고 결의안을 상정했고, 드디어 시상식 날이 밝았습니다. 이 대회는 65개 대학 450명이 참가했고, 대상이 외교부장관상이므로 누구도 선불리 대상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격려상, 장려상, 우수상에서 다른 국가가 호명되자 정말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최우수상을 발표할 때는 “하나님 대상은 고사하고 아무 상이나 주세요.”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발표되는 순간, 발표자의 입술에서는 제가 맡은 국가명이 들려왔고, 결국 저는 주일 최고의 상을 주신 최고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최고의 기도를 해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부모님, 그리고 자격 없는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청주예수중심교회 성도 한예찬

특별한 성인식

북미에 사는 어느 인디언들은 자녀들의 성인식을 옥수수 밭에서 거행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낳은 옥수수 밭으로 데리고 가서 바구니를 하나씩 주며 가장 좋은 옥수수 한 개만을 따오게 합니다. 그것이 성년식의 전부이므로 별로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붙는데, 밭고랑을 한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아갈 수 없고, 한번 고른 옥수수보다 더 좋은 옥수수가 나타나도 그것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상에서 한 가지를 고를 수 있다는 것이며,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나머지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심사숙고해야만 합니다. 어느덧 밭고랑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면 성인식을 치르는 아이들은 옥수수 한 개씩을 바구니에 담아오는데 그들이 선택한 옥수수는 대부분 최상품의 좋은 옥수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부호 존 데이비스 록펠러에게 성공비결을 묻자 ‘올바른 판단력’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올바른 판단 능력을 갖추려면 틀린 판단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록펠러의 충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도 그 실수를 통해 배우지도,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식견과 안목이 분별력입니다. 북미 인디언들은 아마도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정권을 부여받기도 하지만,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스스로 짊어져야하기 때문이겠죠.

분별력,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2장 16절)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것이다. 매사 오래 참는 것이 복이요 참을 인(忍)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약식동원(藥食同源) 호두편

호두는 호도육(胡桃肉)이라는 약제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성질이 달고 따뜻하고 독성이 없으며, 폐와 신장, 그리고 대장에 작용을 한다. 하루 복용량은 10~30g 정도이며, 몸에 열이 많거나 변이 많이 묽은 사람들은 복용을 주의하여야 한다. 호두에는 불포화지방산과 단백질, 비타민B1과 B2가 풍부하여 피부를 좋게 하며, 호두 기름은 고급식용유로 사용되고, 장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감소시켜 동맥경화,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에게 많이 쓰인다.

호두는 장수하는 과일이라 해서 장수와(長壽果)라는 미칭도 있다. 비타민E가 함유되어 있어서 과산화지질 생성을 억제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검버섯 생성을 방지하고 노화를 억제한다.

호두가 뇌(腦)의 모습과 비슷하게 생겨서 호두를 먹으면 뇌기능이 좋아지고 총명해진다고 수험생에게 호두와 잣을 권하기도 한다. 정말 뇌기능에 호두가 도움이 될까? 의학중참사록(醫學衷中參西錄)에서 호두는 간과 신장을 보강해주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약이어서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머리를 검게 하고, 몸이 허약해서 생긴 기침이나 천식,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을 다스린다고 하였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뇌수와 골수를 보충해주는 요약으로 손가락, 손목, 팔꿈치, 무릎, 뒤꿈치, 허리, 뇌에 관련된 계통에 호두는 부족한 윤회유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여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준다. 비타민이나 영양제, 인삼이나 홍삼, 녹용으로 채우지 못하는 뼈 속의 중요한 영양을 호두가 보충하기에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것에 비하여 그 가치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음식이고 약재이다.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호두 3개, 오미자 7알을 자기 전에 먹는 것이 도움이 되며, 노인성 변비의 경우도 호두 4~5

개를 잡자기 전에 꿀과 함께 먹으면 장에 영양이 채워지며 대장기능이 좋아진다. 기침이 오래가는 경우 호두 5알, 인삼 4g, 살구씨 3g을 연하게 끓여먹는 것도 도움이 되고, 소변이 될 시원한 경우 호두 4알과 복분자 4g을 같이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관절이 아플 때는 호두 6g과 두충 6g을 연하게 달여 먹으면 관절에 영양이 채워지고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이들의 성장발육이 시원치 않은 경우에도 호두를 먹게 하면 도움이 된다.

호두는 특별히 체질에 관계없이 복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은 음식이기에 머리를 많이 쓰거나 관절이 불편하다면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변이 아주 묽은 사람이 아니라면 장복을 하여도 무방한 건강 장수 음식이며 약재이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